한국 동아시안게임 종합 3위

육상·수영 등 부진…중·일 벽 못 넘어

기초종목 전폭 투자 등 체질개선 시급

지난 열흘간 홍콩에서 열린 제5회 동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결국 5회 연속 종합 3위로 막을 내렸다.

한국은 22개 전 종목에 385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39개, 은메달 45개, 동메달 59개를 획득했으나 기초 종목에서 열세를 보여 중국과 일본의 벽을 넘지 못하고 3위에 머물렀다.

지난 해 베이징올림픽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중국이야 버거운 상대라 하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순위경쟁에서는 여러 차례 앞섰던 일본에게 유독 동아시안게임에서는 한번도 이기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동아시안게임에서 일본에 뒤지는 것은 가장 메달 수가 많은 기초종목 육상과 수영에서 엄청난 수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에서 육상에 걸린 금메달은 46개.

이 중 중국이 26개를 차지했고 일본은 16개를 가져갔다. 한국은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임은지(부산연제구청)와 여자 세단뛰기의 정혜경(대구시청) 만이 1위에 올랐다.

수영은 더욱 심각했다.

총 40개의 금메달 중 중국이 20개, 일본은 19개를 나눠가졌고 대만도 금메달 1개를 땄다.

한국은 10대 유망주들이 선전했지만 단 1개의 금메달도 건지지 못했다.

다이빙 10종목을 석권한 중국은 육상과 수영에서만 금메달 56개를 휩쓸었고 일본도 두 종목에서 35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한국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태권도가 13개, 볼링에서 8개의 금메달을 수확했지만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태권도는 올림픽에 국가별 출전자가 4명으로 제한되고 볼링은 올림픽 종목이 아니다.

육상과 수영은 아시안게임은 물론 올림픽에서도 최다 메달 종목이다.

지난 해 베이징올림픽 때는 육상이 47개, 수영은 36개 세부종목이 펼쳐졌다.

그럼에도 한국이 역대 올림픽에서 육상과 수영에서 획득한 금메달은 베이징올림픽 수영 자유형 400m에서 우승한 박태환(단국대)이 유일하다.

그동안 양궁과 사격 등 표적 종목과 태권도, 역도, 유도, 레슬링 등 계체 종목에서 주로 금메달을 땄고 야구와 핸드볼, 배드민턴, 탁구 등이 간간이 가세하면서 세계 스포츠 10강의 위치를 힘겹게 지켜온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들 종목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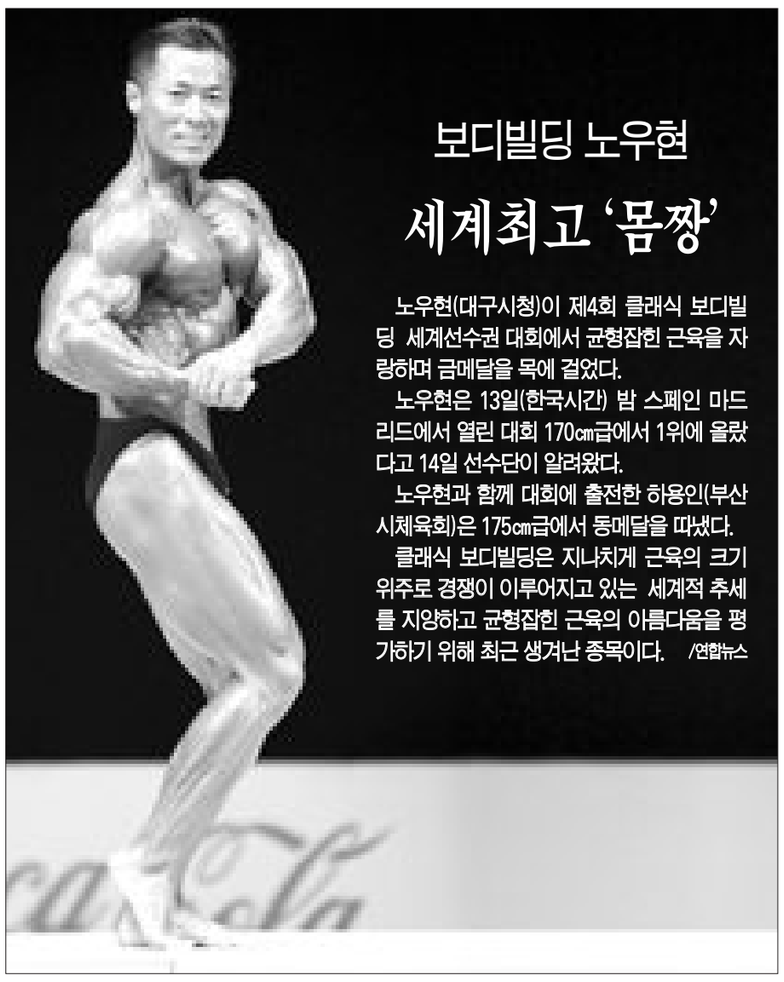
메달밭인 육상과 수영에는 금메달이 널려 있는데 투기와 구기종목에만 전념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안이다.

중국과 일본은 이번 대회를 통해 수영과 육상의 간판 스타들을 10대 유망주들로 세대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확인했다.

한국도 수영에서는 9개의 국내신기록을 작성했지만 올림픽 메달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있다.

일부 스타선수들에게만 의존했던 한국스포츠가 세계 10강의 자리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선 기초종목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연합뉴스



보디빌딩 노우현

세계최고 '몸짱'

노우현(대구시청)이 제4회 클래식 보디빌딩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균형잡힌 근육을 자랑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노우현은 13일(한국시간) 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 170㎝급에서 1위에 올랐다고 14일 선수단이 알려왔다.

노우현과 함께 대회에 출전한 하용인(부산시체육회)은 175㎝급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클래식 보디빌딩은 지나치게 근육의 크기 위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지양하고 균형잡힌 근육의 아름다움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생겨난 종목이다. /연합뉴스

1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4회 클래식 보디빌딩 세계선수권 대회 170㎝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노우현(대구시청)이 균형잡힌 근육을 뽐내고 있다. 〈대한보디빌딩협회 제공〉

'청자배 전남 사회인야구대회' 성료

해남 '디노' 우승…목포 '피닉스' 2위

'제1회 청자배 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지난 12일부터 2일간 강진베이스볼 파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해남 '디노'·목포 '워리어스'·강진 '해오름' 등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16개 팀 400여명의 사회야구인들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전남의 야구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강진군이 주최하고 강진군생활체육회와 강진군야구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주)강진베이스볼파크가 후원했다.

전남 사회야구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뽐낸 이날 대회는 16개 팀이 4개조 4팀으로 나눠 풀 리그 방식으로 총 27개 경기를 벌인 결과 해남 '디노'팀이 첫 대회 우승기를 품에 안았다. 또 2위는 목포 '피닉스' 팀이 차지했으며, 이번 대회 영광의 MVP는 해남 디노팀의 전영욱 선수가, 감독상은 해남 디노의 박용덕 감독이 각각 차지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빙속 이규혁 1,000m 銀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차대회

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맏형' 이규혁(서울시청)이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차 대회 1000m에서 한국 타이기록을 세우며 은메달을 따냈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단거리 전문' 이상화(한국체대)도 1000m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규혁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부 디비전A(1부리그) 1000m 경기에서 1분07초07을 기록, 지난 2007년 11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에서 자신이 세웠던 한국 신기록과 동률을 이루며 샤니 데이비스(미국.1분06초67)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500m 1,2차 레이스를 모두 석권하며 최고의 몸상태를 과시한 이규혁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로 이번 대회를 마치면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 전망을 밝혔다.

여자 1000m에서는 이상화가 신기록 행진을 계속했다. 20명의 출전 선수 중 4조 아웃코스에서 레이스를 펼친 이상화는 1분15초26만에 결승선을 통과, 지난 3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월드컵 파이널에서 자신이 작성했던 한국기록(1분15초88)을 무려 0.62초나 앞당겼다. /연합뉴스

女 핸드볼 헝가리와 무승부

한국 여자핸드볼이 2009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 마지막 경기까지 힘든 승부를 펼치게 됐다.

4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은 13일 중국 쑤저우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2차리그 2그룹 두번째 경기에서 충분히 역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살리지 못해 헝가리와 28-28로 비겼다.

전날 우승 후보 노르웨이를 꺾고 상승세를 탔던 한국은 승점 5(2승1무1패)로 3위에 머물러 15일 루마니아와 대결에서 반드시 이기고 다른 팀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

J 아이스하키 멕시코 대파

20세 이하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2010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멕시코에 대승을 거두고 기분 좋게 출발했다.

조형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4일(한국시간) 새벽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대회 디비전2(3부리그) A조 첫 경기에서 멕시코를 12-0으로 완파하고 디비전1 승격을 향한 첫 걸음을 뗐다. /연합뉴스

조선대 류종수 동메달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

조선대 류종수가 2009년도 전국 남녀 태권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겸 2010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류종수는 14일 전북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대부 +87kg급 준결승에서 곽도훈(동아대)에게 1-2로 패해 아쉽게 3위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스포츠중계

15일(화)

▲제14회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전(14 : 10·KBS1)

▲09/10 V리그〈KT&G : GS칼텍스〉(16 : 50·SBS스포츠)

▲09/10 V리그〈KT&G : GS칼텍스〉(16 : 40·KBS n스포츠) 〈삼성화재 : 우리캐피탈〉(18 : 40·KBS n스포츠)

▲09/10 프로농구〈오리온스 : KCC〉(18 : 50·MBC ESPN) 〈SK : 전자랜드〉(19 : 00·SBS스포츠)

▲2009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대한민국 : 루마니아〉(22 : 00·KBS n스포츠)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노덕영